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여왕이 신라에만 있었던 까닭?

신라는 남녀 '차별' 아닌 '차이' 보여줘

1. 성골남진과 성조황고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에는 여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의 고려와 조선 및 대만에도 여왕이나 여성 대통령은 추대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유독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 첫째 이유는 53년간 재위하였던 진평왕에게 왕자 없었기 때문이다. 박·석·김씨의 고대에 의해 왕위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김씨로의 교체 이후 아직까지 왕자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 때문에 진평왕은 재위 중에 자신의 지위를 계승할 후보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한때 진평왕은 자신의 형(眞智王)의 아들인 용춘(龍春)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진평왕은 '도량이 넓고 어질며(寬仁) 총명하고 민첩한(明敏)' 덕만(德曼, 善德)의 품격을 본 뒤 그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게 되었다.

지귀(志鬼) 설화와 선덕여왕에 배필을 구해 주겠다는 당 태종의 발언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미혼(未婚)처럼 보인다. 결혼 전의 미려(美麗)한 덕만을 사모한 지귀(志鬼)의 사랑의 불길에 염모사를 태우고 자신은 심귀(心鬼)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불전에 실린 인도의 설화[心火燒燒]의 변용에 의한 것이며 미혼 때의 이야기로 추정된다. 또 태종의 발언 역시 '여인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조롱'으로 이해될 뿐 사실이 아니다. 선덕여왕(632-647)은 먼저 '을(飲, 飯의 誤記, 갈문왕과 결혼한 뒤 을제(乙祭)와 용춘(龍春)과도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의 첫 배필은 '반(飯)으로 불린 갈문왕이다.

기간 왕권을 대리하여 정사를 도맡았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 '신라전'에서 종친인 '대신 을제가 국사를 잡았다' [大臣乙祭柄國]고 한 것이나 (삼국사기) 법흥왕 조목에서 '대신 을제가 국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했다' [大臣乙祭總持國政]고 한 것에서 우리는 선덕여왕이 옹립되기 전까지 그가 과도(濫濫)정권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왕력' 편에서 그의 즉위를 634년으로 적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리고 진평왕의 재위기간(53년)과 그가 왕의 만발이었음을 고려하면 선덕여왕이 재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아마도 50대 초반(52~53세)의 중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신라 여성들의 지위와 위상

몇몇 기록들에 의하면 선덕여왕은 진평왕이 승하한 해이자 그의 원년(632)까지만 해도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위 전이나 즉위 후에도 일부 귀족들은 여전히 여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진평왕의 승하 이후 재위 2년(633)을 맞이한 선덕여왕은 정월에 신궁(神宮)에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 아래 종속시켰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위 3년(634) "정월에 연호를 인평(仁平)이라 고치고, 분황사(芬皇寺)를 창건하였다." 부왕인 진평왕의 연호(建福)에 이어 자신의 연호로 '인평'을 개원(改元)한 것은 국내외에 신라의 독자적인 국가의식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세운 분황사는 '향기로운 황제' [芬皇]임을 과시하는 여왕의 체제를 기념하는 사찰이라 할 수 있다.



선덕여왕은 분황사를 창건하고 '신성한 황실의 여인'을 뜻하는 '성고황조'를 존호로 썼다. 사진은 634년(선덕여왕3) 창건된 분황사 경내의 법당 모습이다.

선덕여왕 왕권강화 위해 분황사 건립 선덕여왕 필두로 여왕시대 열려

있는 것은 당시의 남녀 사이가 '차별'이 아니라 '차이'였다는 사실이다. 남편이 안정된 남편에는 금과 함께 고려장갑과 장갑이 가리개 등이 부장되었지만, 아내가 안정된 북분에는 부인대(夫人帶)와 순금제금동관이 부장되어 있었다. 남분의 금동제 관은 장식성이 단순하고 규모도 작았지만, 북분의 순금제 관은 장식성이 화려하고 규모도 컸으며 왕과 최고의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신라에서는 남해왕의 비인 운제부인이 선도산 검모가 되어 국신(國神)으로서 기림을 받기도 하고, 아노(阿老)의 경우처럼 여성으로서 제사장을 맡기도 했다.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나 경제력은 사회적 지위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 경북 봉하의 축서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이전의 딸인 명단(明端)의 이름이 시주자로 새겨져 있다. 이것은 당시 여인들이 '시주'라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불탑의 조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길쌈은 주요한 역할이었다. 당시 신라에서 거둔 세금이었던 견포와 마포 등의 길쌈을 통해서 만든 직물이었으며 이것은 화폐의 기능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라의 직물생산을 담당했던 여성 관리자인 '모(母)의 존

기록을 통해 그의 선견지명과 예지력을 뒷받침해 주었다. 선덕여왕의 출자(出自)에 대해 안함(安含)은 '도리천녀' (勿利天女)로 추존하였고, 자장(慈藏)은 '찰리종'으로 추존하였다. 선덕여왕은 이들 두 사람이 제시한 불연국도(佛緣國土)설과 황룡사 구층탑의 조성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들이 노니는 신유립을 남산(狼山)으로 조성하고 수미산을 분만 제천소(祭天所)인 첨성대를 세워 이곳을 중심으로 한 불교적 우주관을 건립하였다.

그리하여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왕시대를 열었다. 그를 이은 제28대 진덕여왕은 국반 갈문왕의 딸로서 6년간 재위했다. 그는 선덕여왕 만년에 일어난 비담의 난을 제압한 뒤 김유신과 김춘추 등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진덕여왕은 즉위하여 직접 '태평가' (太平歌)를 짓고 비단을 짜서 무늬를 놓아 사신을 보내어 당 태종에게 보냈다. 그는 남산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어 도리천녀인 선덕여왕의 세계관을 이어갔다. 이어 진덕여왕은 정월 초하루의 아침 조례를 행했고 처음으로 시랑(侍郎) 호칭을 사용했다. 또 경문왕을 이은 제51대 진성여왕은 대구(大矩)화상과 각간 위홍(魏弘)에게 명을 내려 신라의 상주하대 향가의 안목인 <삼대목(三代目)>을 편찬하게 했다. 물론 이들 세 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왕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지위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신라사회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여성 왕위계승은 개방적 신라사회 탓 고구려·백제·가야에선 볼 수 없어

해된다.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는 여성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직계의 왕자가 없으면 방계의 왕자를 세웠다. 그리고 백제는 직계의 왕자 뿐만 아니라 형제의 상속을 병행하였고, 왜(倭)국의 통치자로는 직계와 방계 왕자를 동시에 과견하였다. 반면 신라는 선덕여왕을 필두로 하여 여인을 왕위에 추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위와 외손주까지 왕위에 옹립할 정도로 개방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진평왕에게 단지 왕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선덕여왕의 위상은 신라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위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구 팔공산 부인사(符印寺, 夫人寺)에는 선덕여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숭모전(崇慕殿)과 그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매년 음력 삼월 보름이면 이 지역 여인들이 모여 선덕여왕을 기리는 숭모제(崇慕祭)를 지금도 열고 있다.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왕자 없던 진평왕 덕만 후계자 염두 여인의 왕위계승 위해 진종설 제창

당시 '-반(飯)으로 불린 사람은 백반(白飯)과 국반(國飯) 두 사람 뿐이었다. 삼촌인 국반은 사촌 동생인 승만(勝曼, 眞德女王)의 아버지였다. 그렇다면 덕만(선덕여왕)의 남편은 다른 삼촌인 백반 갈문왕이었음이 분명해진다.

하늘의 사자로부터 상황(上皇, 先代) 왕들의 옥대를 전수받았던 진평왕은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다. 하지만 이전 신라의 역사에서는 여인이 왕위에 오르는 예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진평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종설(眞宗說)을 제창하였다. 우선 왕실의 종성(種姓)을 붓다의 잘제리(娑提利) 종성에 결부시키고 '신성한 왕조의 황통'을 잇기 위해 '성(聖)의 개념을 청안하여 성골(聖骨)을 신성시켰다. 그리고 진평왕은 이어 '성골 남자가 끊어졌다' [聖骨男盡]고 널리 알렸다. 이것은 성골 여자의 왕위 계승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덕만은 성골 여인이었다. 결국 성골의 신성시는 성골 이외의 종성에 대한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진평왕이 갑자기 승하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덕만의 즉위 당시 그의 남편인 백반 갈문왕은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해서 대신(상대 등)이었던 을제(乙祭, 關川의 漢字式 표기)가 일정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4월 6일(금) 14:00

-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하나?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수가 있다.
-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히는 가정
-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속성반 : 대상 - 법당, 포교원, 철학관 운영자

명리, 육효 초보반 모집

백암역리원
02) 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 옆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종합반 :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 특혜 :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중로구 중로3가 16번지 교영빌딩 7층 / 13.5호선 중로 3구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습기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형숙)